

S/W부터 CTP 판재 공급까지

인쇄 · 출판업의 팔방미인으로 거듭난다

PDF 등의 S/W 편집 프로그램부터 CTP(판 출력기) 장비 공급까지 다각적인 사업망을 추구하고 있는 지피(대표 김경중). 1998년 11월에 설립된 이래 디지털 입 · 출력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쇄장비, 인터넷 서비스, IT 솔루션 공급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이 업체가 이렇게 넓은 분야를 소화하고 있는 전략은 바로 프리프레스 · 프레스 · 포스트프레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 인쇄 · 출판 공정의 기술 변화를 꿰뚫고 있다는 것. 전체 국내 시장의 판도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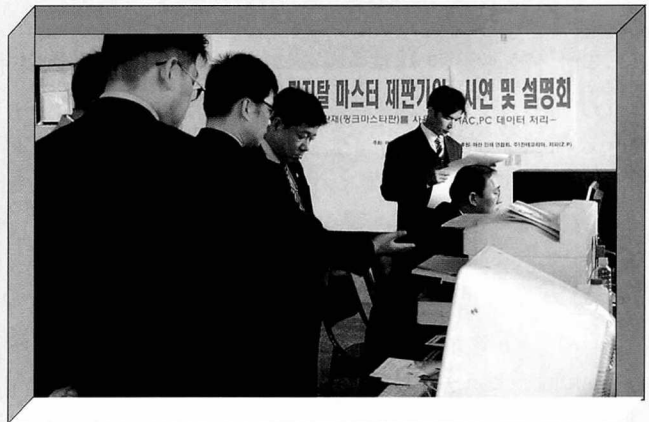
인다는데 있다.

인쇄 · 출판 시장의 궤적과 함께

1999년 3월, 프리프레스 솔루션 전문 공급업체인 비트정보시스템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쇄 · 출판업에 뛰어들어 이 업체는 동년 8월, KB Graphics사와 장비 판매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대리점을 통한 끊임없는 마케팅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애플컴퓨터와의 기술 제휴를 이뤄나간다. 'Mac OS X'이라는 전자 출판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을

미리 예측하고 한발 더 빨리 움직였다. 이후 이 업체는 홍콩 · 일본 · 태국 · 싱가포르 등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Aeon International사와의 제휴를 통해 한국 총판으로 거듭난다.

이러한 행보는 단지 내실화와 외산 장비의 공급을 위한 교두보로 끝나지 않았다. 국내 전자 출판의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한국 멀티넷(주)(2000), (주)조광 프리프레스(2001), NPT(주)(2002) 등과의 대리점 계약을 통해 다각화에 주력한다. 또 인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감지



지피는

- 1999년 8월 KB Graphics Co.,Ltd 장비판매 대리점 계약
- 2000년 10월 PDF Tool S/W 개발
- 2001년 3월 (주)조광 프리프레스 기술제휴 및 계약
- 2002년 9월 Xante (Plate Maker 4-디지털 마스터 제판기) 국내 총판 계약
- 2003년 9월 Coex-Prinkor 2003 박람회 전시-디지털 마스터 제판기 출품
- 2004년 5월 지피칼라테크 일산사무실 오픈
- 2005년 3월 차세대 디지털 컬러 교정 시스템- Dopont Cromalin b2 설명회 개최



하고 CTP 판재 공급에 대한 시장 조사에 착수한다. 기획·편집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컨텐츠로는 100여대가 넘는 CTP 장비의 증가와 소량 다품종으로 변모하는 국내 인쇄·출판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탄탄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반 위에 2002년 8월, Basys UV-Setter CTP를 인쇄산업전시회(KIPES)에 출품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밀접한 접촉과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동년 9월에는 Xante와 디지털 마스터 제판기(Plate Maker 4)에 대한 국내 총판을 계약하고 프레스 공정 전 분야의 공급을 위한 엔진을 가동한다.

2년뒤인 2004년, 이 업체는 국내에 100여대의 CTP가 도입되는 등 고급·정밀·대량화라는 조류에 편승, 디지털 마스터 제판기(경남 창원·마산 전시회)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프레스기기 분야의 토털 공급업체로 입지를 굳혀 나가게 된다. 이 같은 확장세의 유지를 위해 이 업체는 일산에 사무실을 증설하고 대광통상과 필름 및 재료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판재 공급으로까지 사업 영역의

6명의 직원으로 이뤄진 지피가 이렇게 넓은 분야를 소화하고 있는 전략은 바로 프리프레스·프레스·포스트프레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 인쇄·출판 공정의 기술 변화를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폭을 넓힌 것이다.

바로 제한된 기자재의 취급으로는 보수적인 내수 시장의 흐름을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는 운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칫하면 문어발식 확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컨텐츠의 다각화를 장비의 시기 적절한 수입과 대리점 계약,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는 신축성으로 이를 극복했다.

올 1월, 이 같은 노력은 가시권에 접어들게 된다. ECRM과 'MAKO 8'에 대한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CTP(판 출력

기) 및 CTF(필름 출력기) 등을 취급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토털 인쇄기기 장비 공급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최근 이 업체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인 듀폰과 손을 잡고 Cromalin b2(색 교정시스템)의 국내 공급원으로 2차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운영 전략은 1인 다역

충무로와 일산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 개개인이 마케팅 업무부터 관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취급 물품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에서도 특별한 한계가 없다. 오프셋·실크·그래비아·플렉소·경인쇄 등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김경중 사장을 비롯해 직원이 총 6명에 불과한 이 업체가 다루고 있는 다각적인 분야를 감안한다면 가히 놀랄만하다. 이는 액면 상 나타나는 매출보다는 내부적인 성과물과 질 좋은 외산 인쇄 장비들의 수입을 통한 장비 공급이 우선 시 됐기 때문이다. 좋은 물량의 공급은 소비자들 먼저 찾게 되고 이는 다시 고객을 불러들이는 피드백 작용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체 개발에서 수입,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D/B화한 결과 설립 년도 8년 만에 '우량아' 라는 원동력을 낳은 것이다. 총무로와 일산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 개개인이 마케팅 업무부터 관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

주요 납품 및 정비보수 업체들은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굵직굵직한 관공서나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공·해군 본부, 한국통신(KT NET), 한국수출포장, 문화·영남일보, 중국 대련 Sewing Product사 등을 비롯해 국내 250여개의 마스터·오프셋 취급 업체에 손길이 닿고 있다. 자체 개발에서 수입,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D/B화한 결과 설립 년도 8년 만에 '우량아' 라는 원동력을 낳은 것이다.

다각적인 사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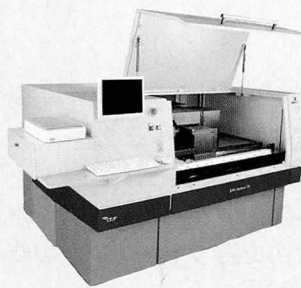
지피의 주력품은 PDF(전자문서변환장치), CTF(필름출력기), CTP(판출력기), PROOF(교정시스템), CTDM(디지털 마스터 제판기) 등으로 모든 인쇄 공정 단계의 기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통점은 사용자와 고객과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공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인쇄사의 실질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경인쇄업(마스터기)을 하는지, CTP 장비를 구축해 놓고 운영하는지, 기획실과의 현실적인 의사소통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시스템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 인쇄물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 시 적용된다. 납품 물량이 거래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에게도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선진 운영 전략 기법을 통해 이 업체가 공급하는 기종들은 대부분 고객 맞춤형이다.

<취급 품목>

다음은 ECRM, SCREEN, CREO 등의 CTF(필름 출력기) 전 기종을 취급하고 있는 지피의 공급 기종들이다.

>> BasysPrint 'UV-Setter CTP'



정확한 사각 Spot에 의한 세밀한 망점 재현이 가능한 CTP 판 출력기로 일반 PS 소부판을 사용하며 360~450nm의 파장에 의한 울트라 바이올렛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진공 흡착식 평판형(Flat-Bed Vacuum) 구조를 통해 PS 작업에서 이상적인 작업 방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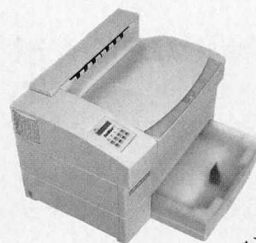
>> ECRM의 'MAKO 8'



CTP 판 출력기로 핀바 레지스터 시스템이 적용돼 판 크기의 제한이 없으며 빠르고 쉬운 판 교환이 가능하다. 1800, 2400, 2540, 3048, 3556dpi 등의 다양한 출력 해상이 가능하고 최대(+10%), 최소(-15%)까지의 확대, 축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5마이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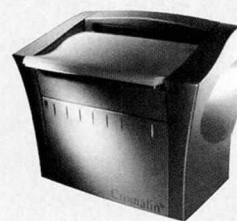
의 Spot 크기에 60mw 바이올렛 다이오드 광학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드럼 방식처럼 판을 따로 구부릴 필요가 없으며 핀바의 손쉬운 교환으로 준비 작업 시간이 단축됐다.

>> DUPONT 'Cromalin b2'



지난 3월, 듀폰과의 업무 계약식을 통해 취급하고 있는 CMS 교정시스템으로 헤드 어댑터 유닛이 탑재돼 있으며 프린트 헤드 일체형이다. 기존에 출시되고 있는 CFIJ보다 오랜 수명을 자랑하며 고장율이 적다. 특히 기술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트포터미터가 내장돼 있어 자동 조정과 수시 확인이 가능하다. 8컬러 잉크 세트 탑재가 가능하고 드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Xante 'PlateMaker4'



디지털 마스터 제판기로 1200×1200dpi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돔보선(13~35.5인치)까지 출력할 수 있다. 정교한 그레이스케일의 조절이 가능해 이미지 처리에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와이드 플레이트 출력은 340mm까지 가능하며 역상 인쇄 기능이 추가돼 있다. <장홍일 기자>